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개강

군산시, 이웃이 모여 소통 학습… 나눔 통한 평생학습공동체 실현

찾아가는 지역 평생교육의 바람이 거세진다. 군산시는 마을 단위 주민이 함께 모여 평생학습에 위한 배움을 토대로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를 30일부터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간 6개 지역에서 개강한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는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주민 10인 이상이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소득향상·환경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마을자원·문화유산·관광자원 등과 연계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신현에서는 부녀회가 중심되어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폐기된 물품 업사이클링, 원도심인 월명동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모여 관광객 대상의 '관광자원 연계된 군산 주역 사진 및 엽서 만들기'를 추진한다.

또 한강아남 최초 3.1 만세운동 발상지인 구암동 경력단절여성들은 '자수 활용 섬유공예 배우기', 신풍동 경력 단절여성들은 폐품으로 생활소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폐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신영동에서는 100년 역사를 지난 군산 대표 전통시장인 공설시장 상인들이 중심되어 공설시장 수목 해충 방지와 순남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마케팅 학습과정인 '공설시장 입구 격을 환경조성' 배움 과정을 운영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청년센터 청춘에서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원데이클래스가 큰 인기 속에 미루리됐다.

'청춘' 뻔하지 않은 재미

의산청년센터, MZ세대들 소통·문화의 공간 자리매김

의산청년센터 청춘에서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원데이클래스가 큰 인기 속에 미루리됐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실내 클라이밍, 반려견(묘)를 위한 코비늘 손뜨개, 나만의 리면 그릇 만들기, 무동력 우드 스피커 만들기로 구성되어 총 60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의산에서 즐길거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의산청년센터 청춘은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소통,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프로그램 사전 선호도 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원데이클래스 참여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매월 의산청년센터 청춘 프로그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뻔하지 않은 놀거리, 즐길거리, 체험 등으로 청년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FUN한 청년 놀이터로 힐링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소식통

군산시 종합민원상담실
6월 2일부터 운영재개

군산시가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및 피해구제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한다.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은 열린 민원과 민원쉼터 내 상담실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법률, 세무·회계의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민원 상담실을 상시 운영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로 인해 운영을 잠시 중단했다가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며 다시 운영을 재개한다.

이직도 산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시는 장기간 운영중단으로 적체되어 있는 상담수요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선거 종료 즉시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의산시, 보석박물관
공공디자인 공간 조성

의산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보석박물관이 공공디자인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애 없는 행복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2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에 '多이로운 익산, 모두를 위한 보석박물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多이로운 익산, 모두를 위한 보석박물관' 사업은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보석박물관에 유니버설 디자인(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적용한 안내체계와 이동환경 등을 개선해 국적·나이·계층에 상관없이 이용하기 쉬운 환경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보석박물관에 누구나 찾기 쉬운 안내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점자블록, 설치, 편의시설 개선 등 장애 있는 디자인을 구현해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전시시설을 제공할 전망이다.

/군산=이재준 기자

의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최대 240만원 한도

의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카드 매출액을 포함한 지난 해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240만 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7일부터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익산시 임시청사 소상공인과

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등의지를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공고일 전 폐업자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인 유흥·시행성 업종, 금융·보험 관련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수수료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부가기타세 과세표준 증명, 카드매출액 자료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받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신청인은 사전에 부가기타세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 신고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민원콜센터(☎ 1577-0072)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전액 지원', '노란우산공제 기업 지원' 등의 혜택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되기 되기 위해 기존 카드수수료 지원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미중물 역할을 특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한 군산 전 해역 내에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는 1.6~2.0GW 규모의 5~6개 정도 입지를 발굴해 단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사 전파영향 조사, 환경영향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고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가 이번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사업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추진해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그간 운영해 온 상생협의회를

군산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선정

군산시(추진: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가 중소벤처기업부 202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모에 선정, 골목상권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 등 국도비 2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온라인·비대면 소비확산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업종 및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도입 및 지원하는 주요 정책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의 평가는 종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 이해도 및 추진의지, 지역사회 연계 파급력 등을 서류평가, 현장평가, 최종심의 3단계 과정의 평가를 거쳐 추진됐다.

동백로나운상가는 주변 대단위 아파

트 단지 입주 예정으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 기대 및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점, 추진 주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25일 선정됐다.

향후, 군산시 동백로나운상가 내 스마트기술보급사업 참여를 신청한 47개의 소상공인 사업주가 업종 및 경영환경을 고려해 스마트 기술을 신청하면,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가 각 사업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스마트기술보급사업 공모 선정은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의지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비대면 온택트 시대로의 전환이 진입장벽이 아닌,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군산시가 신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단지개발의 동력을 얻게됐다.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35억원을 들여 신입부·해수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연계 사업으로, 2024년까지 해상풍력 추진 시장 타당성 검증을 위해 4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EU를 포함

한 군산 전 해역 내에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는 1.6~2.0GW 규모의 5~6개 정도 입지를 발굴해 단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사 전파영향 조사, 환경영향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고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가 이번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사업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추진해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그간 운영해 온 상생협의회를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